

농부이신 하나님¹⁾

창(1-2장), 마태(6:25-34)를 중심으로

박성원(목사, WARC 협력과증언 총무)

김태건(번역가) 역

성서에는 농업과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필자가 농업과 관련해 뭔가 고무적인 이야기가 없을까하고 성서를 찾아보니 막상 그와 같은 기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필자가 발견한 것은 성서가 농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오히려 농업에 대해 억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 아침 필자의 성경 공부는 농업의 관점에서 볼 때 성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발시킬 소지가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농업과 밀접히 관련된 성서의 기사들에 대한 일부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농업에 대해 정말 비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몇몇 기사들을 제시해 보겠다. 창세기 3장 17-19절을 보면, 아담과 이브는

1) 이 글은 지난 2003년 12월 7-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ECAG (Ecumenical Coalition for Alternative Globalization) 주최로 열린 “대안적 농업과 교역을 위한 세미나”에서 오전 성서연구 시간에 영문으로 발표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이른바 원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죄된 후 혹독한 형벌에 처해진다. 아담이 받은 형벌은 다음과 같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희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채소를 먹으리라.”

여기서 보면 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으로 희생당한다. 농업이 형벌의 수단이 된 것이다. 농업은 땀 흘리는 노동이자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갚기 위해 치러야 하는 노동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농업이 혹독하게 수모를 당하는 대목이다.

창세기 6장의 기사도 땅이 희생되고 수모를 당하는 이야기다. 홍수가 닥치자 제일 먼저 희생된 것이 땅과 농지였다. 땅과 들과 그 위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과실을 징치(懲治)하시는 하나님의 형벌로 큰 댓가를 치루어야 했다.

이른바 농업의 주변화란 위상 추락과 관련된 좀 더 충격적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석: 농업이란 개념은 토지를 이용한 작물 재배나 농사 외에 목축업까지도 아우르는 양면적 개념이다) 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다(창세기 4장). 필자는 이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과거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필자는 이 기사의 논리를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produced a man) 하니라.”(여기서 ‘낳다’ *produced*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는 ‘가인’이란 단어와 유사하다.)

가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가인은 전혀

하나님의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가인과 그의 사랑하는 아우 아벨의 관계를 깬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였다. 가인에게 살인의 책임이 있다 하나 사실 살인의 근원적 동기를 제공한 것은 하나님이였다.

문제의 발단은 두 형제가 바친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짐승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물은 거부하셨다. 아벨이 드린 짐승의 제물을 선호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근원적 동기였다. 이후로 가인은 악의 상징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 가인은 자신의 탓도 아닌 문제에 대해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기사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해야 마땅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것이 아니다. 구약성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사는 두 문화 집단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 부족인 아벨 족속과 가나안 부족인 가인 족속간의 권력 투쟁 말이다. 아벨 부족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전통을 지닌 유목민이었고 가인 부족은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전통을 가졌던 가나안 농민이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지역 내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부족의 시각에서 기록된 것이다. 즉, 자신들이 신의 축복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이스라엘 부족의 선민의식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필자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날 세계 각지의 수많은 지역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야기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여기서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은 인간들의 권력 투쟁이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왜곡을 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도 인간의 권력 투쟁에 의해 희생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마치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만 서시는 것처럼 조작이 되고 만 것이다.

유목민인 이스라엘 부족이 가나안 부족을 물리친 후로 농업은 열등한 문화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레위기 5장 7절과 11절에 보면 제물에 여러 가지 등급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양이 최고급 제물이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2등급에 해당하는 제물이며 고운 가루가 3등급에 속하는 제물이었다. 물론 제물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상황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의 제물은 짐승의 제물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모세의 십계명 외에도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제사에 관한 십계명이 나온다. 모세의 십계명이 윤리적 십계명인 점에 반해 제사의 십계명은 농업과 관련이 된 십계명이다. 그러나 이 제사의 십계명에는 그 이면에 가나안 민족의 농업 문화를 경멸하는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나안 민족의 농업 문화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의도적인 멸시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多産)의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야훼주의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멸시를 당하는 정치적 원인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종교란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 농업 기반의 사회에서 폭넓게 신봉되고 있는 다산신(多産神) 숭배의 종교를 모욕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의도 역시 분명히 읽어낼 수가 있다. 서양에서 파견된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서 지역 내의 전통 문화를 미신이라고 몰아붙이며 이와 같은 행동을 했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농업을 멸시하는 행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농업은 산업화와 현대화와 기술 발전의 과정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경제의 세계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조차 멸시를 받아 왔다.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은 이다지도 중요한 자신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필자는 농업이 그 존엄성을 되찾게 하고 싶다.

성서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3대 절기 즉 유월절(Passover)과 오순절(Pentecost)과 초막절(Tabernacles)이 있다. 이 절기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근원은 농업과 관련이 있는 축제로서 겐(Kenite) 부족의 문화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유월절은 본래 유목민들이 양떼들에 미칠 위험을 물리치기 위해 치른 의식(儀式)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목민들은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자신들의 목초지에 일체의 부정한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장막의 문에 짐승의 피를 발라 놓았었다. 이러한 전통은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 모든 애굽 가정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히브리 가정이 보호되었던 사건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전통은 이후 바빌론 유수(幽囚) 시절에 무교병 이야기와 결합이 되어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고난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권능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를 기념하는 의식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초막절의 유래는 이렇다. 원래 포도 수확기가 되면 겐 부족은 밭에 장막을 치고 포도 수확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 기거하며 일을 했다. 이러한 전통은 히브리 노예들의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채택이 되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 족속은 시나이 광야에서 40년 간 방랑 생활을 할 때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장막 중앙에 성막(Tabernacle)을 설치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치루면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고된 방랑 생활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인도를 감사하며 광야의 생활을 회상했다. 오순절

의 유래도 이와 같다. 만물수확의 절기로써 자신들에게 음식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필자가 피력하고자 하는 바는 히브리인들은 농업과 관련된 이러한 의식(儀式)들을 수용하면서 출애굽이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신학화 작업을 수행할 때에 이를 디딤돌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농업과 관련된 의식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해석 작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과 관련된 의식은 그 본래적 의미가 증발되면서 결국은 이에 대한 정치적, 신학적, 이데올로기적 해석 작업의 결과에 종속이 되고 말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농업과 관련된 의식은 이의 신학적 내지는 정치적 해석 작업에 의해 그 본래적 의미가 퇴색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땅의 개념도 위의 경우와 다를 게 없다. 월터 브뤼거만(Walter Brueggemann)은 그의 저서 『땅』(The Land)에서 땅의 개념이 정치적 개념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땅의 개념은 최초의 언약의 역사에서 관리(management)의 역사를 거쳐 방랑 생활에서 시작되어 왕국에서 정점을 이루는 새로운 언약의 역사로 이어지는 정치적 전개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땅의 개념은 상당한 정치적 색깔을 띠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대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에서도 땅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땅은 이제 더 이상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을 부양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코자 하는 바는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사들이 오직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데올로기적, 구원론적 의도를 확신시켜 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면서 성서의 기사가 지닌 본래적 가치와 의미가 왜곡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농업의 가치가 맹목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얼마나 왜곡되고 말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나안 민족 고유의 농업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을 정당화하기 위

해 악마의 화신으로 내몰리고 만 것이다.

우리는 농업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 농업은 중립적인 것이다. 농업은 우리 모두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여기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 성별, 신앙 나아가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 등과 같은 여하한 형태의 차별도 존재해선 안 된다. 음식에 있어선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가 없다. 여자와 남자 모두가 먹어야 한다. 늙은이와 젊은이 모두가 먹어야 한다. 죄수와 나아가 사형수조차도 먹을 권리가 있다. 양성애자와 동성애자 모두가 먹을 권리가 있다. 지구의 남반부와 북반부 사람들 모두 꼭 같이 먹을 권리가 있다. 기독교도와 회교도 모두가 동등하게 먹어야 한다. 불교도와 힌두교도와 애니미즘(animism) 신봉자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다. 불구자나 여타 사람들도 음식에 대해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부자라고 위(胃)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다. 북반부 사람들 역시 위가 두 개가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위가 하나뿐이다.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음식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농업에서 정치와 이데올로기적 색채는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필자는 농업은 창조와 관련된 모종의 실체란 새로운 시각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창조란 농업의 가치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증발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성서적 시각에서 보면 순수한 농업이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상황에 해당된다. 농업은 이른바 구원사(救援史)라 불리는 구원론적(soteriological) 역사에 선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농업은 어떠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나 정치, 사회, 경제적 연관성이나 논리 등에 구속이 되어선 안 된다. 농업은 전 생태계 구성원의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식량과 농업을 독점하거나 지배하거나 왜곡하거나 정치화하는 행태야말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불의인 것이다. 농업은 여하한 정치 체제나 문화적 차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심지어는 종교적 교리보다도 우선하는 것이다. 농업

과 자연이야말로 창조물의 공동체 내에서 가장 중립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말이 너무 길어질 소지가 있긴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이는 하나님과 창세기 3장 이후에 보이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분이실 수도 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이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은 유목민인 이스라엘 민족, 즉 기독교도인 서양인들에 의해 납치되어 오로지 이들만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납치 상태에서 풀어드려야만 한다.

농업의 본래적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농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 방식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에 대한 방향 재정립 작업은 창조의 신학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이제 농업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방식에서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을 시도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창조의 신학은 창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라 주장한다. 창조는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 일이다. '창조하다'(to create)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바라'(bara)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표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이는 이른바 '...에서 만든 제품'(made in ...)이라는 식의 표현에서 쓰이는 활동과는 다른 것이다.

2. 창조의 신학은 그 어떤 인간도 창조물에 대한 주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이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주장한다. 성서의 창조의 기사는 바빌론 유수(幽囚) 생활이란 특정 상황에서 신앙 고백의 형태로 씌어진 것이다. 바빌론의 왕이 하나님의 질서를 난폭하게 훼손하는 것을 보고 유수 생활을 하던 사제 그룹은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3. 창조의 신학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인간 또는 협의적으로 선민들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자연도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의 보살핌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독점적 소유 상태에서 풀어드려야만 한다.

4. 창조의 신학은 생명의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상호적 관계성을 지닌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 생명의 동산에 사는 모든 창조물은 고립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있다. 상생(相生, conviviality)은 바로 상호적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이 동산의 모든 창조물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다.

5. 창조의 신학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것을 양육할 수는 있으나 생명체를 기르고 번식을 관리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 이시라고 주장한다.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빅뱅(Big Bang) 이후로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의 팽창 과정에서 단지 0.0001초의 실수만 있더라도 전 우주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주의 이러한 팽창과 운동이 질서 정연하게 전개되도록 주관하는 힘 또는 에너지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 하시니라” 라는 창세기의 구절이 이러한 우주의 개념과 관련된 의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주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에너지 또는 신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6. 창조의 신학은 인간은 자연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는 있으나 여기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적인 개발은 있을 수 없다. 창조물의 관계성이 손상될 때 이런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7. 창조의 신학은 우주는 단순히 과학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고도로 영적이고 직관적인 세계라고 주장한다. 모든 창조물은 다

나름대로의 생존의 논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생존의 논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8. 창조의 신학은 아름다운 것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셨다. '좋다'(good)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아름답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창조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의 사고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1. 우리는 농업이 경제 활동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식량은 자동차 생산 등과 같은 기술 발전에 속하는 경제 활동과 동등한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선 안 된다. 식량은 모든 존재의 삶의 근원이자 기반이다. 이는 경제의 여타 부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우리는 인간의 과오로 희생을 치른 자연과 농업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께서 베푸시는 보살핌을 모든 창조물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생명의 동산에 존재하는 자원들마저도 나름대로의 존엄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인간의 윤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기계적인 우주관을 넘어서서 유기적이고 상호적이고 역동적인 시각에서 우주를 이해하는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인간의 무질서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창조와 우주의 운행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우주

는 인간의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운행되는 것이다. 태초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계셨다.

필자의 소견엔 성서에서 상기의 사항들을 충족시키면서도 나아가 이에 가장 상응하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6장 25-34절에 나타난 말씀이 아닐까 한다.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먹이시며 그 아름다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개입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가르침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만물을 먹이고 보살피며 그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일을 주관하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다.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모색하는 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법을 구해야 한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회피해 가려 든다면 종국엔 재앙이 찾아들고 말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를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선 분명히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화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최종적인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저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보다도 훨씬 더한 것이 될 것이다. ❶